



2023. 1. 12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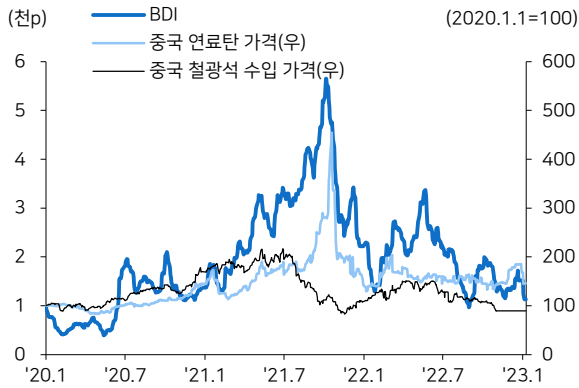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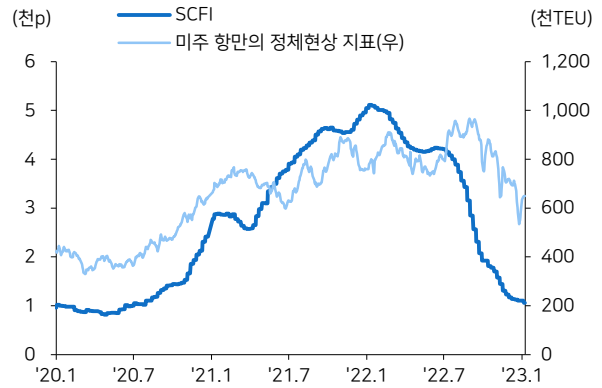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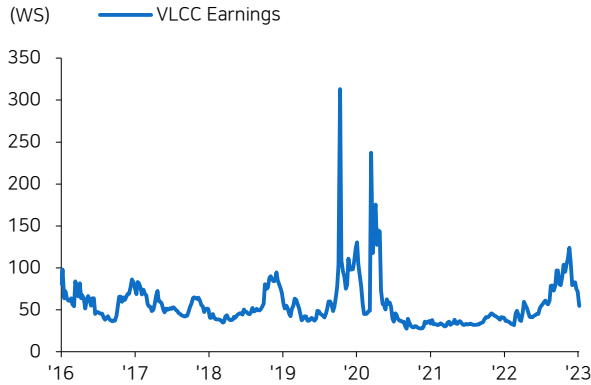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043.0p(-5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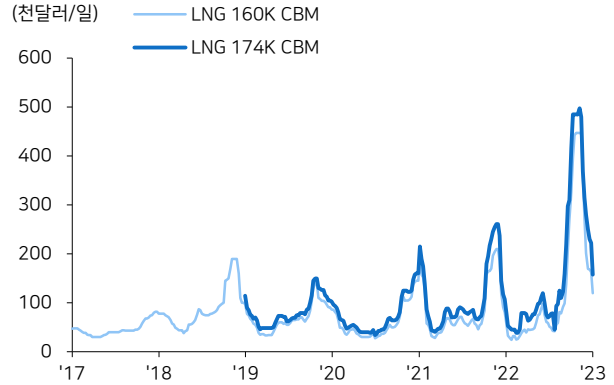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061.1p(-46.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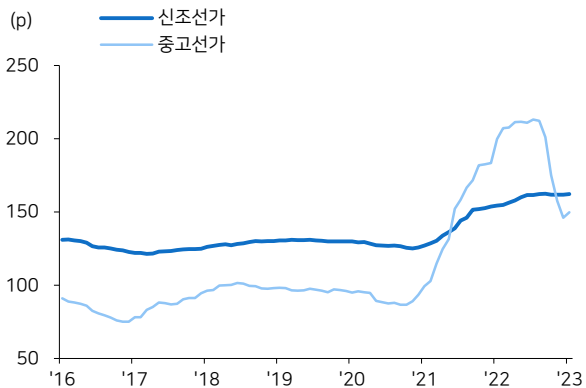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4.7p(-17.0p WoW)



LNG Spot 운임 120.0p(-43.0p WoW)
157.5p(-65.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2.2p(+0.3p WoW)
149.8p(+3.8p WoW)



항공시장 지표 253.4p(-3.1p DoD)
100.6p(+0.5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중국, 한·일 국민 '중경유 비자면제' 중단...추가 보복조치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고 보도됨. 기존에는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지만,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임. 또,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언급됨. (연합뉴스)

한일 비자 끊은 중, 미국에는 항공편 정상화 '러브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장기간 중단된 항공편 운항 정상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중국 민항국은 항공편 운항 재개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중국과 미국 항공사가 협정과 시장 수요에 맞춰 양국간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대한항공, 운항횟수 코로나19 전 대비 60%대로 늘린다

대한항공이 오는 3월말부터 미국과 유럽 노선을 큰 폭으로 늘린다고 보도됨. 운항횟수를 팬데믹 이전의 60%선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알려짐. 2022년말 기준 전 노선의 주당 평균 운항횟수는 445회로, 팬데믹 이전의 49% 수준이었다고 알려짐. 운항횟수 회복은 북미와 유럽 노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천-LA 노선에는 초대형 여객기인 A380을 투입할 예정으로 언급됨. 스페인 마드리드와 체코 프라하 등 유럽 주요 관광 노선도 올 하계 시즌부터 복항 검토 중으로 알려짐. (중앙일보)

Saudi Aramco nears decision for up to 11 coveted offshore contracts

사우디 Aramco가 11개 EPC계약 최종 결정을 몇 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보도됨. 10개 글로벌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알려짐. 주요 계약은 1월 중 발표되고, 나머지는 2월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 Aramco는 생산용량을 현재 12MBPD(일일 백만배럴)에서 2027년 13MBPD까지 확대할 것으로 언급한 바 있음. Abu Safah, Manifa, Zuluf, Marjan, Hasbah와 Safaniyah 유전 및 가스전 관련 계약으로 알려짐. (Upstream)

Lubmin floating LNG terminal to come online this week

독일의 두번째 FSRU터미널이 오는 14일 가동될 예정으로 보도됨. 12월부터 가동을 준비했지만, 환경규제에 대응하느라 가동이 몇 주 미뤄진 바 있음. 독일은 2023년말까지 연간 11.5BCM까지 처리량을 확대하고, 2024년 중순 Neptune FSRU를 Lubmin으로 이동시켜 추가 2BCM을 확보할 예정으로 알려짐. (Upstream)

Date set for Lease Sale 259 in US Gulf of Mexico

미국 BOEM이 임대부지 259, 261에 대한 최종 환경영향성명서 보충 자료를 발표하며 입찰일자가 결정됐다고 보도됨. 임대부지 259는 3월 29일, 261은 9월말로 알려짐. 임대부지 259는 5+3년간의 계약으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